

# 부동산 침체 직격탄… 광주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최다’

작년 1232건 총 2219억…2위 전남도 1321억 달해

HUG 회수율 5.2% 역대 최저…“공적 부담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지난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사고액이 총 3540억원으로, 광주와 전남이 1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197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비수도권 사고 비중이 96%에 달하고, 광주가 2219억원(1232건)으로 전

국에서 사고액이 가장 많았다. 전남도 1321억원(935건)으로 뒤를 이어 두 지역이 전체 사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88억원), 경북(337억원) 순이었다.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일정 기간 버텨왔지만, 지방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그 영향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 법인 임대보증금보증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고 세대수	524세대	767세대	1256세대	2668세대	4489세대
사고금액	409억원	510억원	1387억원	3308억원	6795억원
대위변제 금액	463억원	463억원	802억원	2148억원	5197억원
회수 금액	350억원	207억원	155억원	382억원	268억원
회수율	75.6%	44.7%	19.3%	17.8%	5.2%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금을 임차인(보증 체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기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

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2023년 1387억원(1256가구), 2024년 3308억원(2668가구), 지난해 6795억원(4489가구)으로 급증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HUG의 대위변제액도 2021년과 2022년 463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에서 지난해 5197억원까지 증가했다. 급증한 대위변제액과는 다르게 공적 보증의 회수 기능은 붕괴 단계다. 법인 임대보증의 회수율은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점점 떨어지다가 지난해 5.2%로 급락했다.

이는 연도별 역대 최저이자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진 수치다.

사고액이 고스란히 HUG의 손실로 이어지며 공적 부담이 점차 커지는 꼴이다.

HUG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 속에서 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던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한계에 불과하며 연쇄 도산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임자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오는 26일 마감하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0일 북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살펴

북광주세무서 신고센터 운영 현황 점검…“적극 세정 지원”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오는 26일 마감하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0일 북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김 청장은 신고 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납

답 등을 이용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전자계산서 매출·매입합계, 면세수입 금액 등 4개를 추가한 총 22 항목을 안내한다.

광주국세청은 이와 함께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

소한 일반과세자(8만2000명)와 같이 세자 전체(부동산임대업종 제외, 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자연재해와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완화…가중치 5%p ↓

## 전남도·공항공사·관광재단, 여행업계 지원 ‘맞손’

### 인센티브·관광상품 개발

### 국제선 활용 수요 회복 추진



전남도는 21일 한국공항공사,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연계 여행업계 지원 및 전남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안국제공항 연계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남 관광상품을 유치·판매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해, 단기적으로는 여행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미중률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부 예산과 자체 사업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로 확대한다. 이미 확정된 정부예산 가운데 △전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홍보 지원비 6억원 △여행업계 역량 강화 교

## 광주은행, NICE 손잡고 ‘생산적 금융’ 확대

지방은행 첫 협약…ESG 데이터 활용 잠재기업 선제 발굴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21일 본점에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NICE 평가정보㈜(대표이사 김종운)와 지방은행 최초로 ESG 데이터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NICE평가정보의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형 영업망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SG 데이터를 기업 평가에 활용해 재무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발맞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인증 결과를 여신심사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21일 본점에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NICE평가정보㈜와 지방은행 최초로 ESG 데이터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장중 55만원 최고가

### 코스피도 4900선 회복

린 4808.94로 출발해 24.18p(0.49%) 오른 4909.9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반도체주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 중 한때 4910.54까지 오르기도 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시가총액은 112조 4210억원으로 4위인 LG 에너지솔루션(99조3130억원)과의 격차를 더욱 벌었다.

전날에는 장중 100조원을 터치했지만 곧바로 내려와 98조789억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현대차는 지속되는 로보틱스 모멘텀에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55만 933.3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25.08p(2.57%) 내린 951.2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8.32p(1.88%) 내린 958.05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25.08p(2.57%) 내린 951.2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25.08p(2.57%) 내린 951.2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76.81p(1.57%) 내